

『鄉藥集成方』 「諸咳門」에 나타난 朝鮮前期 鄉藥醫學의 특징

강연 석¹⁾ · 안상우²⁾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angyak medicine in the early period of Chosun through 「Various Coughs section」 in 『Hyangyakjipseongbang』

Kang Yeon Seok · Ahn Sang Woo

In researches done previous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angyak medicine in the early period of Chosun shown in 「HyangyakBoncho(鄉藥本草)」 in Vol. 76-85 of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and 「Sanghan section(傷寒門)」 in Vol. 5-8 of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was investigated. 「Cough section(咳嗽門)」 in 「Various Diseases volume」 of 『Dongeuibogam(東醫寶鑑·雜病篇)』 Vol. 5 and 「Various Coughs section(諸咳門)」 of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Vol. 24-25 which is a paragraph related to 「Sanghan section(傷寒門)」 was compared. The variety of the Hyangyak, processing methods and forms of the Hyangyak were shown by comparing each oriental medical botany(本草) used for treating cough(咳嗽) in 『Dongeuibogam(東醫寶鑑)』. Subsequently, the difference between each structure and medical theory was speculated. The facts revealed in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Various Coughs section(諸咳門)] of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uses only the Hyangyak, and no foreign medicines were used for treating cough(咳嗽) in 『Dongeuibogam(東醫寶鑑)』.

Second, in [Various Coughs section(諸咳門)] of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

1)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협동과정

2)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方)』, medicines related to diet and medicines taken raw were widely used, and various forms of medicine such as extracts, plasters, and gruels were used.

Third, like other medical books in earlier periods, [Various Coughs section(諸咳門)] of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describes the medical theory with conciseness, and keeps the structure of symptom classification focused on treatment and prescription.

Fourth, as [Hyangyakboncho(鄉藥本草)] extensively uses the knowledge of oriental medical botany(本草) from two of Four Masters of GeumWon(金·元); JangWonSo(張元素) and LeeDongWon(李東垣), 'Various Coughs section(諸咳門)』 of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quotes the books of JuDanGae but does not adopt the theory and prescriptions of 'replenishing yin and downbearing fire (滋陰降火)'.

To find a more descriptive picture of the Hyangyak medicine for the treatment of 'cough(咳嗽)',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books written in the same period -『Euibangyuchui(醫方類聚)』 and books compiled in China should be done, and there should be more profound researches done on individual medicines and prescriptions.

Key words :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Donggeuibogam(東醫寶鑑)』, the Hyangyak(鄉藥), the Hyangyak medicine(鄉藥醫學), cough(咳嗽), early period of Chosun(朝鮮前期)

1. 序論

‘鄉藥’은 “각 시기에 따라 한민족의 국가 영토[高麗, 朝鮮 등] 안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藥材”, ‘鄉藥醫學’은 “향약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여 치료하는 의학”, ‘鄉藥醫書’는 “향약 및 향약의학을 기술하고 있는 의서”이다.³⁾ 논자는 앞서 『鄉藥集成方』의 「鄉藥本草」와 「傷寒門」에 나오는 本草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鄉藥本草」는 麗末鮮初의 시기에 조선의 疆域 안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약재인 鄉藥을 그 대상으로 하며, 조선에서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그

3)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 중 「鄉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1(통권8호), 2002, pp.17-18

구성을 안배해 놓았고, 당대의 朝鮮과 中國의 本草 및 炮劑 지식을 집대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⁴⁾ 또 「傷寒門」은 『傷寒論』과 달리 鄉藥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六經辨證」 체계를 소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로 편제된 것도 알게 되었다.⁵⁾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주제였던 『鄉藥集成方』 제5-8권 「傷寒門」과의 연관 단락인 제24-25권 「諸咳門」과 『東醫寶鑑·雜病篇』 제5권에 나오는 「咳嗽」문의 관련 조문을 비교하였다. 각 조문에 나오는 本草의 比較를 통해 「咳嗽」治療에 쓰인 鄉藥의 種類, 修治法 및 劑型의 差異를 알아 보았고, 이어서 각각의 體制와 治療理論의 差異까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결과가 「諸咳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朝鮮前期 鄉藥醫學의 또다른 특징도 알게 되어 논문을 통해 보고한다.

II. 本 論

1. 연구방법

『향약집성방』이나 『동의보감』처럼 본초 및 침구, 의학기초이론 및 임상 의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綜合醫書들은 책 전체의 특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기가 어렵다. 분량이 방대하여 텍스트를 정밀히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각각의 病症마다 다양한 醫家들의 다양한 學說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향약집성방』의 향약의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향약집성방』에 인용⁶⁾된 향약 의서인 『鄉藥古方』, 『鄉藥簡易方』, 『三和子鄉藥方』, 『鄉藥救急方』, 『鄉藥惠民經驗方』, 『鄉藥濟生集成方』 등과의 비교연구가 있어야 하지만, 『향약구급방』⁷⁾을 제외하고는 현전하는 것이 없어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한의학 전통인 鄉藥醫學이 녹아있는 『동의보감』⁸⁾과의 비교를 통해 당시의 향약의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 보았다.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本草의 比較⁹⁾를 통해 「咳嗽」治療에 쓰인 鄉藥의 種類, 修治法 및 劑型의 差異를 알아 보았고, 이어서 각각의 體制와 治療理論의 差異까지 살펴보았다.

『향약집성방』 및 『동의보감』에는 「諸咳門」과 「咳嗽」문 이외에도 아래의 표2, 표3과 같이 「咳嗽」를 주된 치료목표로 삼은 관련 조문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동의보감』의 「해수」문 편제

4)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 중 「鄉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1(통권8호), 2002, pp.24-25

5)姜延錫·安相佑, 『鄉藥集成方』 중 「傷寒門」의 본초분석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鄉藥醫學,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2(통권9호), 2002, p.22

6) 金南一, 『鄉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震檀學報 第87號 別冊, 震檀學會, 1999, pp.208-211

7) 申榮日, 鄉藥救急方에 對한 研究 (復原 및 醫史學的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p.134

8) 김홍균, 『향약집성방』이 후대에 미친 영향,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p.114

9) 가장 많이 사용된 본초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회수나 비율은 구하지 않았다.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한 병증인 咳嗽, 咳, 嗽, 喘, 喘嗽, 哮證, 肺脹證, 肺痿證, 咳逆證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의 ‘해수’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작은 범위의 ‘咳嗽’라는 병증에만 국한시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것은 표1과 같다.

표1. 본 연구에 선택된 ‘해수’ 관련조문

『鄉藥集成方』卷24-25 「諸咳門」

咳嗽 (鍼灸法)
久咳嗽
卒咳嗽
咳嗽喘急
咳嗽上氣
咳嗽痰唾稠粘
咳嗽喉中作呀呷聲

『東醫寶鑑·雜病篇』卷5 「咳嗽」

咳嗽病因
脉法
咳嗽雖屬肺亦有臟腑之異
臟腑治咳藥
嗽作有四時早晏之異
咳嗽諸證 風嗽, 寒嗽, 熱嗽, 濕嗽, 鬱嗽, 勞嗽, 食積嗽, 氣嗽
痰嗽, 乾嗽, 血嗽, 酒嗽, 久嗽, 火嗽, 夜嗽, 天行嗽
通治咳嗽藥

표2. 『향약집성방』의 ‘해수’ 관련조문

卷6	傷寒門 傷寒喘
卷9	熱病門 熱病喘急
卷11	脚氣門 脚氣上氣
卷24-25	諸咳門 咳嗽(鍼灸法), 久咳嗽, 卒咳嗽, 咳嗽喘急 咳嗽上氣, 咳嗽痰唾稠粘, 咳嗽喉中作呀呷聲
卷25	諸氣門 上氣
卷25	痰飲門 痰飲諸證, 痰癖, 支飲, 懸飲, 溢飲, 痰結實 咳嗽唾膿血, 走哺
卷26	嘔吐門 咳逆
卷55	婦人諸病門 婦人咳嗽, 婦人上氣喘急
卷59	妊娠疾病門 妊娠咳嗽
卷65	產後門 產後咳嗽, 產後虛喘
卷68	小兒科 小兒咳嗽, 小兒咳嗽咽喉作呀呷聲

표3. 『동의보감』의 ‘해수’ 관련조문

內景篇 卷1	氣 上氣
內景篇 卷2	血 咳血嗽血唾血咯血
雜病篇 卷5	咳嗽 咳嗽病因, 脉法, 咳嗽雖屬肺亦有臟腑之異, 臟腑治咳藥 嗽作有四時早晏之異 咳嗽諸證, 風嗽, 寒嗽, 熱嗽, 濕嗽, 鬱嗽, 勞嗽, 食積嗽, 氣嗽, 痰嗽, 乾嗽, 血嗽, 酒嗽, 久嗽, 火嗽, 夜嗽, 天行嗽 通治咳嗽藥 喘證有八, 風寒喘, 痰喘, 氣喘, 火喘, 水喘, 久喘 胃虛喘, 陰虛喘, 諸傷發喘嗽, 喘嗽通治藥 喘嗽宜辨寒熱, 喘嗽宜分虛實, 喘嗽聲嘶, 喘嗽上氣出於腎虛 喘嗽劫藥, 喘嗽熏藥 哮證, 肺脹證, 肺痿證 咳逆證, 咳逆與噦爲一, 咳逆治法, 咳逆易治難治證 取嚏法, 齟法, 禁忌法, 嗽喘咳逆不治證
雜病篇 卷10	婦人 子嗽, 喘嗽
雜病篇 卷11	小兒 痰涎喘嗽, 痰喘

2. 향약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고 약재선택을 폭넓게 함

『향약집성방』의 「傷寒門」에는 조선전기의 향약만을 이용하여 처방을 구성하고 있다. 薑, 朮, 梔子, 大黃, 人蔘, 蔥, 葛根, 地黃, 芍藥, 黃芩, 升麻, 石膏, 柴胡, 半夏, 陳皮 등의 향약은 ‘상한’의 치료에 사용하였으나 『傷寒論』에서 중요한 약물인 麻黃, 桂枝, 附子, 甘草, 猪苓, 禹餘糧, 龍骨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¹⁰⁾

같은 방법으로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의 ‘咳嗽’와 관련한 조문에서도 사용된 본초의 비교를 통해 당대의 향약을 구분해 보고, 아울러 다른 용법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1. 『동의보감』의 ‘해수’ 치료에 사용된 본초

『동의보감』에서 ‘해수’ 치료에 사용된 본초는 아래의 표4와 같다. 그 중 첫 세 줄에 기록한 半夏, 茯苓, 甘草, 薑, 南星, 烏梅, 陳皮, 青黛, 知母, 桂, 瓜婁, 桔梗, 麻黃, 桑白皮, 細辛, 枳殼, 貝母, 杏仁, 黃芩, 麥門冬, 阿膠, 五味子, 人蔘, 棗, 天門冬 등의 약재는 16종 해수 중 절반이 넘는 최소 8종 이상의 해수에 골고루 사용된 약재들이다.

네 번째 줄에 기술한 當歸, 熟地黃, 芍藥, 川芎은 실제 기록된 16종 해수의 처방에는 8종을 넘지 못하나 16종 해수 앞에 기술한 咳嗽雖屬肺亦有臟腑之異, 臟腑治咳藥, 作有四時早晏之異 중에 四物湯이나 六味地黃元, 滋陰降火湯, 芍藥甘草湯 등이 여러 곳에서 거론되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특이한 점은 16종 해수 가운데 勞嗽, 乾嗽, 夜嗽, 血嗽와 여타의 다른 해수 사이에 사용된 본초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노수, 건수, 야수, 혈수를 제외한 해수에서는 첫 세줄에 나열한 반하, 복령, 감초, 강, 남성, 오매, 진피, 청대, 지모, 계, 과루, 길경, 마황, 상백피, 세신, 지각, 패모, 행인, 황금, 맥문동, 아교, 오미자, 인삼, 조, 천문동 등을 주요 약재로 하여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 반면 노수, 건수, 야수, 혈수에서는 效能이나 歸經 등이 ‘해수’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당귀, 숙지황, 천궁, 작약 등이 주요약재이다.

10) 姜延錫·安相佑, 『鄉藥集成方』 중 「傷寒門」의 본초분석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鄉藥醫學, 한국한의학연구논문집8/2(통권9호), 2002, p.19, 표2

표4. 『동의보감』의 ‘해수’ 치료에 사용된 본초

半夏, 茯苓, 甘草, 薑, 南星, 烏梅, 陳皮, 青黛, 知母

杏仁, 枳殼, 貝母, 桂, 瓜婁, 桔梗, 麻黃, 桑白皮, 細辛, 黃芩

人參, 五味子, 麥門冬, 天門冬, 阿膠, 棗

當歸, 熟地黃, 芍藥, 川芎

訶子皮, 甘遂, 羌活, 乾葛, 高良薑, 藿香, 款冬花, 韭, 枸杞子, 橘皮, 橘紅, 蘿菔子, 藍漆, 茶, 丹參, 大卜皮, 大黃, 杜沖, 馬兜鈴, 芒硝, 茅根, 牡丹皮, 木通, 木香, 蜜, 朴硝, 薄荷, 蚌粉, 防風, 白僵蠶, 白芥子, 白芨, 白蜜, 白礬, 百部根, 栝子仁, 白芷, 白朮, 百合, 蜂蜜, 蜂房, 附子炮, 檳榔, 砂糖, 山查子, 山茱萸, 山藥, 生桃仁, 生地黃, 犀角, 石膏, 石礮, 旋覆花, 雪梨, 小麥, 蘇木, 升麻, 柿霜, 柴胡, 神麴, 罌粟殼, 連翹, 蓮肉, 羚羊角, 吳茱萸, 藕, 禹餘糧, 遠志, 薏苡仁, 飴糖, 紫蘇, 紫菀, 赤石脂, 全蝎, 前胡, 葶藶子, 丁香, 皂角, 竹瀝, 竹葉, 地骨皮, 枳實, 辰砂, 蒼朮, 茜根, 天麻, 川椒, 青礞石, 青竹葉, 青皮, 草豆蔻, 葱, 梔子, 沈香, 澤瀉, 通草, 巴豆, 蝙蝠, 海粉, 香附子, 玄參, 荊芥, 胡桃肉, 紅花, 滑石, 黃芪, 黃蠟, 黃連, 黃栢, 厚朴, 黑糖

2.2. 『향약집성방』의 ‘해수’ 치료에 사용된 본초

『향약집성방』에서 ‘해수’ 치료에 사용된 본초는 아래의 표5와 같다. 『향약집성방』의 ‘해수’ 치료에 널리 이용된 약물들은 半夏, 生薑, 天南星, 杏仁, 桑根白皮, 陳橘皮, 人參, 五味子, 乾薑, 棗, 白礬, 藍漆, 葶藶, 皂角, 生地黃, 豉, 紫蘇, 酥, 牛乳, 蜜, 飴, 胡桃肉 등이다. 이 가운데 표5의 첫 두줄에 기록한 반하, 생강, 천남성, 행인, 상근백피, 진굴피, 인삼, 오미자, 건강, 조 등은 『동의보감』에 사용된 약재들과 비슷하지만 셋째, 넷째줄에 있는 白礬, 藍漆, 葶藶, 皂角, 生地黃, 豉, 紫蘇, 酥, 牛乳, 蜜, 飴, 胡桃肉 등은 『동의보감』에서는 사용되지 않거나 많이 사용되지 않은 약재들이다.

『동의보감』에는 사용되었으나 『향약집성방』에 쓰이지 않은 약재들은 貝母, 麻黃, 肉桂, 甘草를 비롯하여 訶子皮, 款冬花, 附子, 砂糖, 連翹, 高良薑, 黃連 등이다. 향약 가운데서도 熟地黃, 芍藥은 다른 門에서는 사용되었으면서도 「제해문」에만 이용되지 않은 약재이다. 『동의보

감』에서는 麥門冬, 天門冬, 五味子, 枳殼, 桔梗, 瓜蒌仁 등의 약재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향약집성방』에서는 사용회수가 보다 적다. 대신 酥, 牛乳, 蜜, 飴, 胡桃肉, 鹿角膠, 鹿髓, 飴糖, 豬肝, 豬尾, 豬肪白, 豬腎, 豬肉, 豬趾甲, 鯉魚 등 食餌와 관련있는 향약을 폭넓게 이용하여 虛勞性 咳嗽에 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이라는 것은 꾸준히, 자주 챙겨 먹는 것이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의사로부터 약재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다. 값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수입약재¹¹⁾를 써서는 실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변에 늘상 있는 향약을 잘 활용하기 위한 처방들이다. 이는 향약을 이용하는 향약의학만의 장점이며, 왜 『향약집성방』을 여러차례 간행¹²⁾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표5. 『향약집성방』의 ‘해수’ 치료에 사용된 본초

半夏, 生薑, 天南星, 杏仁, 桑根白皮, 橘皮, 陳橘皮

人蔘, 五味子, 乾薑, 棗

白礬, 藍漆, 葶藶, 皂角, 生地黄, 豉, 紫蘇

酥, 牛乳, 蜜, 飴, 胡桃肉

芥子, 粳米, 牽牛子, 苧蓼, 苦酒, 蕎麥麪, 膠飴, 龜, 桔梗, 糯米, 蘿蔔, 萊菔子, 鹿角膠, 鹿髓, 茶, 貓骨, 貓猪, 淡竹葉, 當歸, 飴糖, 當門子, 大黃, 桃仁, 童子小便, 燈心, 馬兜鈴, 麥門冬, 麪, 木瓜, 茆根, 米, 薄片, 薄荷, 白牽牛, 白附子, 白朮, 百合, 白蠟殼, 補骨脂, 茯苓, 覆盆子, 伏龍肝, 浮石, 蓖麻, 麝香, 山藥, 蒜薹, 生藕, 薯蕷, 石灰, 蟬殼, 旋覆花, 仙靈脾, 細辛, 松木屑, 柴胡, 阿膠, 罌粟殼, 釀秫米, 御米殼, 鉛白霜, 熱酒, 烏雞, 烏梅, 五倍子, 烏心, 瓦, 牛蒡根, 郁李仁, 梨, 飴糖, 豬肝, 豬尾, 豬肪白, 豬腎, 豬肉, 豬趾甲, 鯉魚, 赤飴, 粘米, 鍾乳, 酒, 粥, 枳殼, 地骨皮, 秦艽, 眞蚌, 陳粟米, 車前子, 天麻, 天門冬, 青黛, 清酒, 醋, 椒目, 葱白, 楸實, 蝙蝠, 荷葉, 蛤粉, 海藻, 香附子, 玄胡索, 滑石, 黃芩, 黃芪, 黑錫

3. 生用藥材 및 다양한 劑型을 사용함

『향약집성방』에서는 『동의보감』에서 많이 쓰이지 않은 食餌와 관련있는 향약들을 폭넓게 활용한 것을 사용된 약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표6처럼 生用한 용례들과 湯藥 이

11)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p.114, p.22

12)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p.114, pp.15-16

외의 다양한 劑型을 많이 활용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산 약제는 대부분 유통의 문제 때문에 乾材된 형태로 들어올 수 밖에 없으므로, 生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向약을 구해야 한다. 또한 湯藥 뿐 아니라 丸, 散, 汁, 膏, 粥 등 각각의 劑型은 약제의 성질과 질병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¹³⁾이므로,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향약집성방』 「제해문」에서는 다양한 食餌 관련 약제와 生用 약제, 여러 가지 劑型을 활용하여 向약이라는 약제의 제한을 뛰어넘고 치료효과를 극대화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向약의 이용이 단순한 약제 수급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땅에서 난 向약으로 조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좋다는 『鄉藥集成方』 序文¹⁴⁾과 跋文¹⁵⁾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표6. 『향약집성방』의 ‘해수’ 치료에 사용된 생용약재 및 다양한 제형

生用藥材

生薑, 生地黃, 生藕, 生百合, 生薯蕷, 生天門冬, 生麩, 生龜, 生梨, 生豬肝
牽牛子 半生半炒, 天南星 半生半炮, 半夏 半生半炮, 白礬 半生半枯
皂角 半燒存性半生去皮, 茆根 二握生剉(臨時取生者炒) 등

汁

桃仁汁, 地黃汁, 薑汁, 牛蒡根汁, 杏仁汁,
絞取汁, 先煎桑根白皮薑棗等取汁二盞, 以水三升煮大棗三十枚得汁一升
候熟去滓取汁, 藍實葉水浸良久搗絞取汁一升 등

粥

研煮粥空腹食之, 每服以粥飲下十丸, 每服以粥飲調下一錢
粥成不計時食, 研取汁和粳米二合煎粥食之 등

膏

煎如膏量其輕重食上熟水下一錢匙, 更煎成膏不計時服,
攪令均慢火煎令成膏, 用皂角膏爲丸亦可, 右搗細取棗肉研成膏爲丸 등

4. 이전 시기 方書들의 전통을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증상별 편제를 선택함

13) 『鄉藥本草』 概論의 論合和法, 論服藥法, 用藥丸散例, 論品藥石炮劑法度 등에 각각의 방법과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4) 唯民間故老, 能以一草, 療一病, 其效甚神者, 豈非宜土之性? 藥與病值而然也.

15) 世宗大王始命醫官, 攷正藥名, 撰輯方書, 名曰《鄉藥集成方》, 總八十五卷. 並刊行於世, 蓋將以東方之藥, 已東人之疾.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의 ‘해수’ 관련 조문의 편제는 앞서 표1, 표2, 표3에서 기술한 바 있다.

4.1. 『동의보감』의 ‘해수’ 관련 편제

『동의보감』이 질병의 부위나 증상에 따른 나열식 분류를 뛰어넘어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라는 보다 추상화된 분류방식으로 편제¹⁶⁾¹⁷⁾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의학이론이 점점 세밀해지면서 방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정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咳嗽』문에서도 앞선 시대의 의서들보다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다양한 학설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咳嗽病因’에서는 『內經』, 『難經』, 『傷寒明理論』을 인용하여 咳, 嗽, 咳嗽을 설명하고 있다. ‘脈法’에도 『내경』, 『상한론』에서부터 明代 의가들에 이르기까지 諸家の 說을 인용하였다. ‘咳嗽雖屬肺亦有臟腑之異’는 『내경』을 인용하고 있으며, ‘臟腑治咳藥’은 海藏을, ‘嗽作有四時早晏之異’에서는 丹溪의 학설을 인용하였다. 16종 해수는 明代 醫書들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어 후반부에는 咳嗽, 咳, 嗽, 喘, 喘嗽, 哮證, 肺脹證, 肺痿證, 咳逆證 등의 유사질환들에 대한 감별과 치료를 기술하였다. ‘嗽作有四時早晏之異’와 16종 해수 중 勞嗽, 乾嗽, 夜嗽는 주단계의 滋陰降火法을 중요한 이론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臟腑治咳藥’과 ‘通治咳嗽藥’의 처방과 약물가감에서는 장원소와 주단계의 학설을 소개하였다. ‘嗽作有四時早晏之異’와 16종 해수 중 노수, 건수, 야수에 사용된 주약재인 숙지황, 당귀, 천궁, 작약은 자음강화법의 이론에 의해 사용된 약물¹⁸⁾이고, 단계의 학설을 수용하면서 덧붙여진 내용임을 알 수 있다.

4.2. 『향약집성방』의 ‘해수’ 관련 편제

『향약집성방』 「諸咳門」에는 먼저 『聖濟總錄』에서 『내경』의 내용을 옮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동의보감』 중 ‘咳嗽病因’ 및 ‘咳嗽雖屬肺亦有臟腑之異’의 내용과 같다. 이어 각종 해수의 처방과 처방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각종 해수에 대한 처방이 특별한 분류없이 뒤섞여 기술되었고, 이어 鍼灸法을 소개하였다. 계속해서 久咳嗽, 卒咳嗽, 咳嗽喘急, 咳嗽上氣, 咳嗽痰唾稠粘, 咳嗽喉中作呀呷聲 등 치료가 잘 안되는 해수와 같이 병행되는 증상을 기술하고 있다.

『東醫寶鑑』 「咳嗽」문은 당시까지의 의학지식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이론과 치료를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각종 해수를 16가지로 구분하고 命名하여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하였다. 반면 『

16) 김남일·신동원·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서울, 1999. pp.1040-1041

17) 안상우, 『醫方類聚』가 『東醫寶鑑』 편찬에 미친 영향, 2000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서울, 2000

18) 앞서 血嗽에서도 당귀, 천궁, 작약, 숙지황이 중요한 약제로 사용되었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血과 관련된 병증이기 때문이지 자음강화의 방법을 쓰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鄉藥集成方』 「諸咳門」은 이전 시기에 나온 다른 方書들처럼 이론은 간략히 서술하였고, 치료와 처방을 위주로 한 症狀別 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金元四大家의 학설 가운데 「향약본초」의 概論과 各論은 모두 王好古의 『湯液本草』와 張元素의 『珍珠囊』을 광범위하게 응용¹⁹⁾하고 있다. 그러나 「제해문」에서는 朱丹溪²⁰⁾ 및 기타 金元 사대가의 서적²¹⁾을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중심 학설과 처방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²²⁾을 알 수 있다.²³⁾

III. 結 論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주제였던 『鄉藥集成方』 제5-8권 「傷寒門」과의 연관 단락인 제 24-25권 「諸咳門」과 『東醫寶鑑·雜病篇』 제5권에 나오는 「咳嗽」문의 관련 조문을 비교하였다. 각 조문에 나오는 本草의 比較를 통해 「咳嗽」治療에 쓰인 鄉藥의 種類, 修治法 및 劑型의 差異를 알아 보았고, 이어서 각각의 體制와 治療理論의 差異까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결과가 「諸咳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朝鮮前期 鄉藥醫學의 또다른 특징도 알게 되어 논문을 통해 보고한다.

첫째, 『향약집성방』 「제해문」에서는 半夏, 生薑, 天南星, 杏仁, 桑根白皮, 陳橘皮, 人蔘, 五味子, 乾薑, 棗, 白礬, 藍漆, 葶藶, 皂角, 生地黃, 豉, 紫蘇, 酥, 牛乳, 蜜, 飴, 胡桃肉 등의 鄉藥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의보감』의 「해수」 치료에 쓰인 약재 중 貝母, 麻黃, 肉桂, 甘草, 訶子皮, 款冬花, 附子, 砂糖, 連翹, 高良薑, 黃連 등의 外國산 약재는 쓰지 않았다. 이를 통해 「상한문」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제해문」에서도 香藥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鄉藥集成方』 「諸咳門」에서는 『동의보감』에 많이 쓰이지 않은 食餌와 관련있는 藥材, 生用한 藥材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으며, 汁, 膏, 粥 등의 다양한 劑型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19)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 중 「鄉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1(통권8호), 2002, pp.23-24

20) 『향약집성방』 제24권 「제해문」 咳嗽喘急. “『金匱鉤玄』 治諸喘不止者, 用劫劑, 一二服, 止. 椒目一二錢, 研爲極細末, 生薑湯調下卽止. 又方 蘿蔔子蒸熟, 皂角燒存性. 右等分爲末, 薑汁和煉蜜丸, 如菉豆大. 每服五十丸, 食後嚙口中, 徐徐嚥下卽止.”

21) 『향약집성방』 제25권 「제해문」 咳嗽痰唾稠粘 『內外傷辨』 “皂角化痰丸, 治勞風心肺壅滯, 痰涎盛多, 喉中不利, 涕唾稠粘, 噎塞吐逆, 不思飲食, 或時昏憤. 皂角木白皮酥炙, 白附子灸, 半夏湯洗七次, 天南星炮, 白礬枯, 赤茯苓去皮, 人蔘各一兩, 枳殼炒二兩. 右爲細末, 薑汁煮麪糊爲丸, 如梧子大. 每服三十丸, 食後溫水送下.”

22) 金南一, 『鄉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震檀學報 第87號 別冊, 震檀學會, 1999, p.212

23) 『鄉藥集成方』(朝鮮·1433)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간행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醫方類聚』(朝鮮·1445)와 『普濟方』(明·1406)에서도 「滋陰降火法」으로 해수를 치료한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것은 乾材된 형태면서 값도 비싼 外國產 藥材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조선 땅에서 난 향약으로 조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좋다는 『鄉藥集成方』 序跋文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東醫寶鑑』 「咳嗽」문은 당시까지의 의학지식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이론과 치료를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각종 해수를 16가지로 구분하고 命名하여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하였다. 반면 『鄉藥集成方』 「諸咳門」은 이전 시기에 나온 다른 方書들처럼 이론은 간략히 서술하였고, 치료와 처방을 위주로 한 症狀別 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넷째, 『東醫寶鑑』 「咳嗽」문의 ‘嗽作有四時早晨之異’와 勞嗽, 乾嗽, 夜嗽의 치료에 중요한 이론으로 채택된 ‘滋陰降火法’을 『鄉藥集成方』 「諸咳門」은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자음강화법’의 주요 약재인 熟地黃, 芍藥 등도 鄉藥에 속하지만 ‘해수’의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鄉藥本草』에서는 金元四大家의 학설 가운데 張元素·李東垣의 本草學 지식을 광범위하게 응용한 반면, 『諸咳門』에서는 그들의 서적을 인용하고 있으면서도 중심 학설과 처방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鄉藥醫學에서 ‘해수’의 치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동시대에 편찬된 『醫方類聚』 및 중국에서 편찬된 의서들과의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개별 약제와 처방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색인어>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향약, 향약의학, 해수, 조선전기

참고문헌

- 1)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 중 「鄉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1(통권8호), 2002
- 2) 姜延錫·安相佑, 『鄉藥集成方』 중 「傷寒門」의 본초분석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鄉藥醫學,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8/2(통권9호), 2002
- 3) 姜延錫, 『鄉藥集成方』의 本草 분석을 통한 朝鮮前期 鄉藥醫學 연구, 경희대학교, 2003
- 4) 金南一, 『鄉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震檀學報 第87號 別冊, 震檀學會, 1999
- 5) 안상우, 『醫方類聚』가 『東醫寶鑑』 편찬에 미친 영향, 2000전국한의학학술대회, 서울, 2000
- 6) 김홍균, 『향약집성방』이 후대에 미친 영향,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2001
- 7) 申榮日, 鄉藥救急方에 對한 研究 (復原 및 醫史學的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 8) 한국한의학연구원,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 2001
- 9)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문의 전산처리, 韓國韓醫學研究院 論文集 제7권 제1호(통권 제7호), 서울, 2001
- 10) 김남일·신동원·여인석,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들녘, 서울, 1999
- 11)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과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0
- 12)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探究堂, 1993
- 13) 鄉藥集成方 全, 杏林書院, 서울, 1943
- 14)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8기 졸업준비위원회, 새천년鄉藥集成方, 정담, 서울, 2000
- 15)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94
- 16)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9
- 17) 醫方類聚, 浙江省中醫研究所, 湖洲中醫院 校點, 1982 (1993 서울 醫聖堂 영인)
- 18) 朱橚, 普濟方,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83 (1993 서울 醫聖堂 영인)
- 19) 한국한의학연구원, CD-ROM 醫方類聚, 서울, 2000
- 20) 한국한의학연구원, CD-ROM 鄉藥集成方, 서울, 2001